

설 땅 잃은 지역 소상공인

영세상권 보호 대책

할인점 입점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대형 유통업체 난입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시설에 대한 입점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유통물류센터의 건립부담을 완화해 중소 유통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재래시장현대화 등 재래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난입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천㎡ 이상 대형매장의 개설요건이 등록제로 규정된 것 외에 출점이나 영업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유통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

대전·전주 유통시설 제한 조례 영세업자 보호 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자립기반 키워야

한 특별법' 등 출점 및 영업제한을 담은 6건의 할인점 규제법안들이 다수당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대형 유통업체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전·전주·광명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점의 입점 제한을 준주거지역은 물론 주거지역·준주거지역까지 적용하고 있고 대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과 제도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대형 점포의 일일 및 공휴일 영업을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300㎡ 이상의 유통 매장은 지역상업시설위원회 회의의 건속 및 토지사용 허가를 받고 6천㎡ 이상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1천㎡ 이상 유통시설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조순대 경영학부 행정학 교수는 "법과 제도적 장치 외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시 국고 보조를 늘리는 등 영세 상인들의 자립기반 확충도 중요하다"면서 "이와함께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대형 유통시설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어린이 경제교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7층 교육장에서 석미선 초등경제연구소 강사를 초청,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어린이회장 경제교육'을 개최했다.

(광주상의 제공)

150억 미만 공공공사 입찰 대형건설업체 참여 못한다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미만 공사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도급하한금액'을 14일자로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급하한금액은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올해는 지

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 상한선이 150억원(중견 74억원)으로 높아진 게 특징이다.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업체로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355천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

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이 7천400억원 이상~1355천억원 미만인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발주공사는 공사금액이 당해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천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이 결정·고시된 도급하한금액은 14일부터 2008년 도급하한금액 고시때까지 적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포스코, 인도제철소 사업 차질 빛나 현지직원 억류 등 주민 거세게 반대

토지수용 6개월째 지연

포스코가 세계 글로벌 3로 도약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제철소 건설로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토지수용 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포스코의 현지 직원 3명이 주민들에 억류됐다 풀려나는 등 주민 저항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인도 사업은 세계 5위의 철강재 매장량을 보유한 오리사주에 오는 2020년까지 총 120억달러를 투입해 연산 1천200만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2004년 8월 포스코의 투자제

안으로 이뤄진 이번 사업은 인도 정부의 지원속에 2005년 6월 오리사주 정부와 포스코간에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본격 추진됐다.

작년 11월 제철소 부지에서 290km 떨어진 곳의 광산 탐사권마저 획득한 포스코는 올해 3월 부지매입, 내년까지 조성공사, 항만공사를 각각 마무리한 뒤 내년 하반기 본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포스코는 전체 사업부지 4천에이커중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국유지(1천135에이커)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저항으로 더 이상 땅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

반대파들은 이 제철소 건설로 최대 2만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며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치솟는 휘발유값

9개월만에 1,600원 돌파 광주 1,517·전남 1,511원

국제 유가의 상승세로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하며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사상 최고 가격에 15원 차이로 근접했고 서울의 평균 판매 가격은 1천600원을 넘어섰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전국유류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1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9 당 1천532.98원으로 전

주에 비해 4.27원 오르며 지난해 8월 다섯째 주의 1천541.41원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 가격인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천548.01원과는 15.03원 차이다.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서울이 1천602.88원으로 1천600원을 넘어섰으며 전주보다 7.39원 상승했고 제주는 1천566.64원으로 11.57원, 인천은 1천551.07원으로 6.31원 올랐다.

하지만 광주(1천517.50원), 전북(1천512.22원), 전남(1천511.03원) 등 3개 지역은 전주보다 0.05~1.00원 떨어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다단계업소 7곳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분기중 7개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 취소됐고 5개 업체는 폐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내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월에는 뉴트라스트림과 이머니플러스 등 7개사가 등록이 취소됐고 왕글로벳, 프로립 등 5개사는 영업부진과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협의 매수

건교부 21일부터 신청받아

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21일부터 매도신청을 받는 등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 올해는 7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

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공사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께 매수 대상을 선정하며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 협의매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까지는 19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5월14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장에 이근영 감사담당관 임명

이근영(54) 국세청 감사담당관이 14일자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에 임명됐다.

지난 83년 행시 24회로 공직과 인연을 맺은 이 국장은 나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전북 군산출신인 이 국장은 지난해 국세청 심사 1과장 시절 부실과세 축소를 통한 납세자 고충해소에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경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Jeju Island Travel Advertisement for Jeju Muongwa Travel. Features '2박3일 78,000원' package, '목포출발', '목카투어', '목동투어', and '광주출발' options. Includes contact info: 064-744-1109.

Modish Gallery Open Sale Advertisement. Features furniture like beds, sofas, and dining sets. Includes text: '싱그러운 새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속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d 'www.modishgallery.co.kr'.